

創刊 14돌을 맞는 새해 아침에 ...

계유년 (癸酉年) 새해를 맞이하여 올 한 해도 관계 당국과 국군장병, 그리고 방산업체 임직원과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萬福이 함께 하시기를 祝願합니다.

本會에서 발행하는 국방전문잡지인 월간 <국방과 기술>이 이번 新年號로 창간 14돌을 맞게 되었습니다. 월간 <국방과 기술>은 지난 79년 1월 창간 이래, 국내외 국방관련 소식과 업계 동향, 선진외국의 무기체계를 비롯한 최신 기술정보를 제공하며 자주국방 건설에 一助하여 왔습니다.

애독자 여러분과 함께 창간 14주년을 자축하면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소임을 다해 온 편집관계자 여러분과 취재협조 및 寄稿 등을 통해 지속적인 성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관련 인사 여러분께 이 기회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70년대초 북한의 지속적인 군사력 확장과 미국의 안보지원대세 변화를 계기로 태동한 우리 방위산업은 지난 20여년동안 우리 軍이 소요로 하는 재래식병기의 완전자립 생산체제를 완료하였고, 최고정밀병기를 개발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정밀 기계공업 및 중화학공업을 비롯한 국내 民需산업 발전에 지대한 과급효과를 미치며 성장하여 왔습니다. 이와 함께 고급 기술인력을 양성하여 산업일선에 배출하고 고용증대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며, 병기의 국내생산으로 외화절감에 따른 국제수지개선에도 이바지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방위산업의 발전은 자주국방에 대한 국민의 자신감과 일체감을 高揚시키는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근 국제질서의 재편과 안보환경의 변화에 편승하여 우리 사회 일각에서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무분별한 군비축소론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수 없으며, 앞으로의 방위산업은 통일 이후를 포함한 국가생존전략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육성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을 재삼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편 우리 방산업계도 자율적인 경영합리화와 품질보증활동의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提高하고, 핵심부품의 국산화 추진 등 기술장벽의 극복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내 유일의 국방관련 전문잡지로서 방위산업의 성장과 軌(軌)를 같이해 온 월간 <국방과 기술>誌도 첨단기술 중심의 선진 무기체계 소개 등을 통해 방산기술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한편, 방산업계의 자주국방 노력에 대한 일반의 이해를 돕는데 더욱 비중있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국방과 기술>誌가 창간 14돌의 오늘을 맞기까지 성원해주신 방산업체 및 관계당국과 국군장병,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이 항상 기쁨으로 충만하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1993년 1월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장 柳 纘 佑

